

法향기 茶향기 한 호흡에 어우러진 '한 집'



화개골에서는 집들과 차밭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0 아동 쌍계사

되었다.
대웅전 앞 비석은 진감 선사의 대공탑비로 진성 여왕 원년(887년)에 건립되었으며, 글을 짓고 쓴 이는 고운 최치원이다. 천년 넘는 비석의 여기저기에는 총탄 자국임이 분명한 상처가 많다. 우리 역사의 수난기를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리다.
사람들은 서둘러 다니며 사진 찍기에 바쁘다. 나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진기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하는 내 뒤통수에 누군가가 주비를 내리친다. 내 발등보다 낮은 곳에서 큰개부랴꽃과 금별초 같은 것들이 열심히 꽃을 내밀고 있다.
절을 나오니 고운 한복 차림의 최상수(88·화개) 할아버지가 손을 잡는다. 막걸리 값이나 벌려고 한

녹차 따는 시기라 모두들 바빠 마을 동학혁명 때 전소돼 '진감 국사 대공탑비에 난 구멍 한국전쟁 아닌 임진왜란 흔적'

다며 춘란을 팔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나물 캐는 여자들이 보인다. 직접 캔 나물을 팔고, 녹차 따 시기라 되며 녹차를 따서 튀고 하는 것이 이 마을 여인들의 일이다.
녹차 따 시기라 다들 바쁘다. 최택순(67·석문) 할머니가 직접 튀은 차가 있다고 해서 산다고 했더니, 차를 내오고 나서 약술을 한 잔 권한다. 보기에도 걸쭉하다. "응게나무 고로쇠 물 가지고 담겼어요. 우리 아저씨 약 할라고." 조금 팔라 하더니, "친금을 줘도 안 팔아요." 한다. 그 말 속에 금슬 좋은 부부의 애정이 듬뿍 들어있다.
마을 중앙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나무 옆에는 신체를 따로 두었는데, 둥글게 돌을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웠다. 과거에는 설탈그릇에 제를 지냈는데, 최근에는 정월 보름날 정오에 제를 지낸다. 먼저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바위에 산신제를 지내고, 그 후 당산 나무에 당산제를 올린다. 경로당 총무를 지냈던 한 병하(71·석문) 할아버지는 마을 내력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
"동학 난리 때 다 전소 되었대요. 옛날에는 읍판 집(통나무를 췌자 모양으로 겹쳐서 쌓은 다음, 흙을

발라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었는데, 흔적 남아 있는 것 보니, 그렇게 지어져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 때 지은 거죠."
한 때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그런데 구경우(82·석문)라는 분이 선물을 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하여 다시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진감 국사 대공탑비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한국전쟁 때 그랬다 하는데, 그거 임진왜란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아냐면, 일제 때 초등학교 때 개학을 하니, 교실이 각 학년 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라. 그해 쌍계사에 분교를 해서, 삼신리, 정금리, 운수리, 용강리까지 해서 쌍계사로 분교를 해서 간 거여. 그 때도 비에 총구멍이 있었어."
한우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고생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지리산 자락만큼 혹독하게 전쟁을 치른 곳도 드물 것이다. 마을과 절은 한 집 같다. "절에 큰 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법당에 올린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거 경로당에 내려주고, 상수도도 쌍계사하고 같이 묵습니다. 한 탱크에서 묵는 거죠. 그래 한 집 식구나 마찬가지죠."
석문을 나서며 바라보니, 시리게 맑은 강물에 비친 꽃색이 곱다. 살아서도 신선이 되어 영생한다는 삼신동이 아니던가. 석문에 기대어 화개를 바라보니, 내 안에서 꽃이 피어난다.

쌍계사=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춘란 따는 최상수 할아버지.



쌍계사.

녹차 명인 김동근씨

화개골서 차 재배 10대째 '백탄 숯불로 튀은 마무리'



쌍계사 아래에 '차 시배지'라는 표시석이 있다. 신라 때 김대립이 중국에서 차를 가져와 심었다는 것이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바위 틈에서 나는 차가 으뜸이요,

자갈 섞인 흙에서 나는 것이 다음이며, 또 팔짜기에서 나는 것이 으뜸인데 이 화개골의 차밭은 다 팔짜기 바위에 있다' 하였다. 팔짜기 깊은 야생 차밭에서 김동근(59·사진)씨를 만났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급 차 명인이다. 2006년 농림부로부터 우전차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전통식품 명인'에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제4회 국제 명차 품평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기도 하였다.
"저희는 마지막을 항상 백탄 숯불로 튀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비법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말에, "다 공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웃는다. 화개골에서 살아온 게 자신이 10대째라는 토박이 김씨. 그의 부친은 쌍계사 스님들과 교류한 결과 쌍계사 비전(秘傳)인 '참나무 장자 무쇠숯 튀움차 제다법'을 터득했고, 그는 차의 대가인 금송 스님과 덕룡 스님을 사부로 모시고, 선가의 제다법과 다도를 지도받았다.
마무리 튀음을 따로 한다는 게 특이하다. "장마 지난 차 맛이에요. 안 좋은 물건은 또 설지 난 차 같구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봄에 만든 차가 장마 지나면 맛이 떨어지죠. 그래 차도 맛 내기 튀음이 가장 중요하죠."
김씨는 녹차만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주머니들 일년 내 일거려 안 끓이게 하기 위해" 감잎차, 뽕잎차, 국화차 등 대용차를 한다는 김씨.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차 향기가 난다.

www.jinpoli.com
NEW TECHNOLOGY SPORTS (주)와룡산업 Tel. 031-977-8774 www.jinpoli.com

부처님 오신날

소중한 인연,

부담없는 선물로 마음을 나누세요.

부처님오신 날 소중한 인연을 만나 복과 행운을 선물하세요. 지인들과의 소박한 정을 나눌수 있는 선물로 건넬이의 정성이 그득합니다.

반짝이는 보라색 큐빅은, 한국의 멋을 그대로 살린 매듭, 빛나는 황금돼지와 달마도 그림은 받는 이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 집니다.

소중한 기념품 **황금돼지 핸드폰 고리**
언제나 신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속아이템으로 원하는 로고 및 사찰명 삽입이 가능합니다.
복과 행운을 드리는 황금돼지 저금통도 있습니다